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s of Local Cultural and Sports Resources on Urban Growth

곽정현*, 서원석**

수원시정연구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JungHyun Kwak(jung-hyun89@suwon.re.kr)*, Wonseok Seo(wseo@cau.ac.kr)**

요약

최근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해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자원을 중심으로 사회·교통·공간성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시의 다양한 개별자원 지표를 이용해 지역의 인구, 산업, 재정측면의 성장에 있어서의 영향관계를 준로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체육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은 해당 도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성장 측면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스포츠시설의 확충을, 산업성장 측면에서는 프로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증가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프로스포츠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으로서의 문화스포츠 기반조성은 도시성장에 있어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성장 정책은 차세대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문화체육자원 | 지역자원 | 도시성장 | 도시정책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nding impact of cultural and sports characteristics on urban growth.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unique urban resources associated with four categories (Social, Traffic, Cultural and Sport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among 228 cities and towns using a semi-lo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various local resourc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urban growth in terms of population, industry,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Impressively, cultural and sports resources are relatively beneficial for the urban growth. For the population and industrial growth, expanding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can be more efficient. For solid local finance, typically focusing on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that have far-reaching ripple effects are useful. The conclusion for this study shows that urban growth policy should prioritize the cultural and sports resources because it can be more effective way to enhance not only for urban growth but also for quality of citizens' life.

■ keyword : | Cultural and Sports Resources | Local Resources | Urban Growth | Urban Policy |

I. 서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중심 체계의 성숙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개발에 있어 그 중심역할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토대로 한 도시성장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도시성장 정책이 주로 산업에 기반을 두었다고 한다면, 주5일제근무로 인해 삶의 질 및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도 문화체육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자체)의 노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문화체육 자원과 관련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축제의 유치, 공공체육시설/프로스포츠시설/문화시설의 확충, 문화체육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4년에 진행된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를 제외하고도 총 555개로 상당한 횟수를 자랑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간 1000개가 넘는 축제성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 지 전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는 ‘스포츠비전2018’을 통해 생활체육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산업으로서의 스포츠 육성 비전을 밝히는 등 중앙정부도 지역의 고유한 자원으로서의 스포츠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 국가적 정책방향의 저변에는 도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문화스포츠가 차세대 전략사업 및 발전동력으로써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들어 지역축제 활성화, 스포츠시설의 확대, 문화여건 개선 등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내 이러한 자원들이 인구, 산업, 재정 측면의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및 기존

관련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전국 시군구 228개 단위를 대상으로 시군구별 2013년 통계연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자료 등을 이용한 4개특성 13개 유·무형 자원지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은 먼저 도시성장지표(인구, 산업, 재정)와 기타 해당 도시특성을 대표하는 주요자원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의 도시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1. 도시성장이론

도시의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주로 인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산업측면에서 도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 또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구측면에서의 도시성장이론을 살펴보면, 크게 고전적 인구이론과 근대 인구이론이 있다. 고전적 인구이론은 맬더스(Tomas Malthus)의 인구론에서 시작되었는데, 인간의 증식력이 식량을 산출하는 토지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산출급수적으로 변하는 식량은 사망률의 증가와 출생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절제(만혼, 금욕)가 없다면 인구증가의 결과로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구와 식량의 관계만을 가지고 도시문제를 설명하려는 점에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2]. 1870년대 등장한 신맬더스주의(Neo-Malthusian) 인구이론은 맬더스가 전제로 하고 있던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 이론은 과잉인구는 사회진보의 최대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이의 조절을 통해 최적의 도시성장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3].

고전적 인구이론의 비판들을 수용하여 수정·보완하고자 근대 인구이론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인구론을 들 수 있다. 상대적 잉여인구론은 과잉인구라는 개념 대신에 상대적 잉여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상대적 잉여인구

1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연도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정보

는 자본가들의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는 과잉인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구와 식량문제는 사회주의에서도 존재하는 문제들로 산업화에 의해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잉여 인구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었다[4].

인구변천이론 또한 대표적인 근대 인구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2년 톰슨(Thompson)이 제시했던 이론으로 인구성장유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출생률이 낮아져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급속한 사망률에 의해 오히려 출생률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한계점으로 남는다[5][6]. 타바라(Tabbarah)의 인구변천이론은 앞서 언급한 출생률의 원인을 찾고자 한 이론으로 사람들의 욕구 변화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능력은 늘어나고 출산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과 영아사망률의 감소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4][7].

마지막으로 인구성장의 개념을 경제성장과의 관계로 확장해 설명한 해로드-도마(Harrod-Domar)의 성장이론이 있는데, 앞선 이론들과는 달리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그리고 노동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국민소득의 변화는 투자의 크기가 아닌 변화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급측면에서는 투자 성장률에 의해 국민소득성장률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측면에서는 인구증가율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8].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의 도시성장이론은 신고전성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과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신고전성장이론은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증가하는 한계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기존의 성장모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모형에서 노동력이 일정하다면 자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둔화되거나 멈추게 되는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인을 기술의 진보에서 찾고자 하였다[9-11].

하지만 신고전성장이론처럼 국가 간의 1인당 소득격

차는 줄어들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머(Romer)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소개했다. 이 이론에서는 그 당시 발생하고 있는 성장률이 외생적인 요인이 아닌 내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내생적 성장이론은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술의 진보에 대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9][11].

신고전성장이론과 구분된 이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의 진보에 의해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기술의 진보가 내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다[12][13]. 따라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장기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의 확보가 필요하며, 저축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저축률 향상 및 소득세율 인하 등의 조세구조 개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특허권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11]. 특히 Jacob[14]은 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도시에서 새로운 지식창조와 규모의 경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시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통한 외부효과로 도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였다.

2. 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1항 3호」에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뿐 아니라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 법에서는 문화회관을, 공연법에서는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관련법 제정을 통해 시설들을 각각의 나뉠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문화시설을 규정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분류법인데,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도서관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체육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

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축구장, 탁구장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는 운동장, 체육관 및 종합체육시설로 분류된다.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로 구분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전문체육시설이란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의미하며 생활체육시설이란 국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 6조에 따라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용도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시설이 많다.² 공공체육시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이 민간체육시설인데,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프로스포츠시설이 있다. 프로스포츠는 개인의 즐거움 및 건강을 위해 스포츠가 일부 종목에서 상업화, 자본화가 되면서 탄생하였다. 최근 들어 프로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프로스포츠산업이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그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프로스포츠시설 유치를 통해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⁴를 꾀하고 있다.

3. 관련 선행연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도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Conroy[15] 및 Northam[16]은 인구증가율을, 정원식[17]은 인구 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Heilbrun[18]은 산업화를 중요한 요

인으로 꼽았다. 정환용[19] 또한 도시성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3차 산업비율의 증가정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고용증대효과와 지역개발효과가 3차 산업에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0]. 임창호·김정섭[21]도 1차 산업과 비교했을 때 2, 3차 산업은 집적경제효과로 인해 한 지역에 산업이 집중하게 되며, 이렇게 집적화 된 산업구조에 의해 지역경제가 발달해 도시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강수연·이희정[22]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25개의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창조성의 관계를 통해 도시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창조산업체와 문화기반이 풍부한 자치구가 창조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체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가 가장 많이 늘린 것 사업 중 하나가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⁵ Getz[23]에 따르면 문화와 관련된 축제들은 관광객을 통한 관광객 지출효과와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 내 고용효과 등 많은 부문에서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지역축제를 사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지역축제는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24-26].

최인식[27]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시마케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트렌드(trend)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지역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 및 인프라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도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한범외[28]의 경우 도시성장을 위한 지역자원 중 프로스포츠에 관심을 가졌는데, 국내 프로스포츠의 경

2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공공체육시설현황 개요 참조

3 각 프로스포츠협회에서 공개하는 역대 관중기록을 살펴보면, 4대 프로스포츠(프로야구·축구·배구·농구)의 연간 누적 관중 수는 2008년도에 약 966만 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약 101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야구와 프로농구의 관중 수가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야구가 구단위 위치하고 있는 도시에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최소 800억에서 최대 2313억 원까지로 고용유발효과 또한 최소 800에서 최대 2500명 까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새로 창단한 KT위즈로 수원시에서는 약 2,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1,4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 매년 한 자리수로 증가하던 지역축제가 1990년대에 들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에 555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

우 연고지를 선정하여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프로스포츠클ubs를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충성도를 전략적으로 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도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수현·유영명[29]은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지에 발생하는 경제과급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경제적 과급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충분히 발생하며, 경제의욕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서원석·곽정현[30] 역시 대규모 프로스포츠시설은 관중유입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과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상호·유의동[31] 또한 프로축구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산출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클ubs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해의 연구의 경우 Jackson[32]은 프로스포츠클ubs를 하나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바라보며 지역 사회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III. 변수 및 분석방법

1. 자료 및 변수의 구성

변수구성을 위한 데이터는 각 시군구별 통계연보(2013년 발행기준) 및 통계청 자료와 시군구별 문화관광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취득하였으며,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들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는 지역성장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이론적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성장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밝혀진 인구(거주민구수), 산업(3차산업종사자), 그리고 지역경제의 또 다른 핵심지표인 지방재정(재정자립도)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역시 기존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시성장 및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체육·교통·공간성격을 가진 13개 유·무형 자

표 1. 변수의 구성

변수		설명	단위	출처	
종속 변수	POP	주민등록 기준 거주 인구 수	명	통계연보	
	IND	3차산업종사자 수	명	통계연보	
	FIN	재정자립도	%	통계청	
독립 변수	사회 자원	APT	아파트비율	%	통계연보
		UNIV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 수	명	통계연보
	교통 자원	SUB	지하철역 유무	더미	철도공사
		TRAIN	철도역 유무	더미	철도공사
		KTX	KTX역 유무	더미	철도공사
	문화 체육 자원	FEST	연간 지역축제 수	개	문화체육관광부
CUL		문화시설 수	개	통계연보	
SPO		공공체육시설 수	개	통계연보	
PRO		4대 프로스포츠시설 입지 유무	개	각 구단 사이트	
공간 자원	AREA	총 면적	km ²	통계연보	
	URBAN	총 면적 중 도시지역 비율	%	통계연보	
	OFFI	시도청 입지 여부	더미	시군구청	
	METRO	수도권 여부	더미	-	

원변수를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문화체육자원으로는 연간 지역축제 개최 수,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수,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 4대(야구, 축구, 농구, 배구) 프로스포츠시설(구장)의 입지여부를 사용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규모 스포츠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준로그다중회귀분석(준로그모형, Semi-lo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독립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중회귀분석이란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모형으로 아래와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다[33].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 \epsilon \quad (1)$$

다중회귀모형에서 β_0 은 y축 절편을 의미하며 회귀상수라고도 한다. β_i 는 독립변수 x_i 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후 오로지 독립변수 x_i 의 증가분에 따른 종속변수 y 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i 번째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s)를 의미한다. 즉 회귀계수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할 때의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구해진 회귀추정식은 다음과 같다[33].

$$\hat{y} = \hat{\beta}_0 + \hat{\beta}_1 x_1 + \dots + \hat{\beta}_n x_n \quad (2)$$

본 연구에서는 일반회귀모형을 사용할 경우 독립변수의 절대적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절대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독립변수들 간 상대적 변화나 변화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34]을 보완함과 동시에 더미(Dummy)형 독립변수가 많이 쓰일 때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변환함수보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준로그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함수식 (3)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구모형(P), 산업모형(I), 지방재정모형(F)을 함수식 (4), (5), (6)과 같이 각각 구축하였다.

$$\log(\hat{y}) = \hat{\beta}_0 + \hat{\beta}_1 x_1 + \dots + \hat{\beta}_n x_n \quad (3)$$

$$\log(P) = \tilde{\beta}_0 + \tilde{\beta}_1 x_1 + \dots + \tilde{\beta}_n x_n \quad (4)$$

$$\log(I) = \tilde{\beta}_0 + \tilde{\beta}_1 x_1 + \dots + \tilde{\beta}_n x_n \quad (5)$$

$$\log(F) = \overline{\beta}_0 + \overline{\beta}_1 x_1 + \dots + \overline{\beta}_n x_n \quad (6)$$

IV. 실증분석

1. 기초통계분석

우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원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 평균 거주인구 수는 22만7천여 명이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평균값은 그 중 28.7%에 해당되는 6만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7%로 가장 낮은 도시(7.8%, 경남 거창군)와 높은 도시(75.78%, 서울시 강남구)를 비교해보면 도시 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특성	변수	Min	Max	Mean	Std. Dev.
종속	POP	10,797	1,178,510	227,016	219,242
	IND	3,301	591,923	64,957	76,882
	FIN	7.8	75.9	27.3	14.9
사회 자원	APT	0.1	88.0	37.2	20.7
	UNIV	0.0	118,974	10,810	18,142
교통 자원	SUB	0.0	1.0	.40	.49
	TRAIN	0.0	1.0	.47	.50
	KTX	0.0	1.0	.17	.37
문화 체육 자원	FEST	0.0	16.0	2.96	2.29
	CUL	0.0	269.0	9.46	20.96
	SPO	1.0	961.0	80.37	90.41
	PRO	0.0	1.0	.13	.33
공간 자원	AREA	2.8	1,819.7	434.3	381.4
	URBAN	0.0	100.0	42.1	42.7
	OFFI	0.0	1.0	.07	.25
	METRO	0.0	1.0	.29	.46

독립변수인 사회자원의 경우에는 총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평균 37%이며,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 수는 전국 평균은 1만 명 정도이나 해당 지역 내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편차는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하였다.

교통자원의 경우 더미변수로 사용한 지하철과 철도의 평균은 0.4-0.5로 대략 전국의 절반정도가 일반철도 교통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KTX의 경우 전국 228개 지자체의 16.7%만이 정차역을 가지고 있어 고속철도 접근성은 일반철도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자원의 경우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제주특별자치도)은 연간 16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평균 약 3개의 축제가 지역마다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평균은 각각 9개와 80개로 도시 내에는 문화시설보다 공공체육시설이 더 많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라북도 전주시(961개)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4대 프로스포츠의 구단은 총 39개이지만 중복입지 지역을 제외하고 총 29개 도시에 관련 스포츠시설이 입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⁶ 2015년 기준, 4대 프로스포츠 종목별 구단 수는 프로야구의 경우 10개, 프로축구는 12개, 프로농구는 10개 그리고 프로배구는 7개의 구단이 전국 29개 도시에 입지되어 있다. 가장 많은 구단이 있는 지자

마지막으로 공간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228개 시군구의 평균 면적은 434km²으로 그 중 약 10%에 해당되는 면적이 도시지역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지역자원과 도시성장 간 상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인구, 산업, 재정측면의 도시성장 변수들과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양한 지역자원 특성들이 상호 어떠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성장에 있어서 지역 내 사회, 교통, 문화체육, 공간자원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성장과 사회자원은 모두 1%이내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파트비율이 높아지고,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구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3차산업종사자 수가 증가할 때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때와 마찬가지로의 경우를 보이게 됨을 뜻한다. 특히 인구성장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아파트비율이 60% 이상의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인구 유입 및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통자원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지하철역의 유무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 모두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은 전국에 748개의 역이 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만 약 500개가 몰려있어 지하철이 운행되는 곳은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거주인구 수, 3차산업종사자 수와 재정자립도 모두 정(+)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철도역의 유무는 지역성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표 3. 지역자원과 도시성장 간 상관성 분석

특성	변수	POP	IND	FIN
사회 자원	APT	.609(.000)	.473(.000)	.643(.000)
	UNIV	.505(.000)	.362(.000)	.323(.000)
교통 자원	SUB	.566(.000)	.044(.000)	.171(.000)
	TRAIN	.521(.510)	-.021(.751)	.175(.309)
	KTX	.568(.009)	-.068(.008)	.090(.178)
문화 체육 자원	FEST	.002(.974)	.045(.501)	-.037(.575)
	CUL	.210(.001)	.511(.000)	.405(.000)
	SPO	.500(.000)	.434(.000)	.264(.000)
	PRO	.454(.000)	.357(.000)	.290(.000)
공간 자원	AREA	-.378(.000)	-.381(.000)	-.435(.000)
	URBAN	.575(.000)	.560(.000)	.630(.000)
	OFFI	.265(.000)	.350(.000)	.154(.000)
	METRO	.481(.000)	.461(.000)	.629(.000)

주: 괄호는 유의확률을 의미

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철도의 역할이 지역의 성장보다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사람 및 화물을 운반하는 연계수단의 성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핵심관점인 문화체육자원은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역성장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축제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못해 도시성장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제외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프로스포츠클ubs의 경우는 모두 독립변수들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1% 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구와 산업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의 성장에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간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들과의 상관성은 모두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총면적(AREA)은 종속변수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높은 도시면적비율, 시도청 소재지, 수도권 입지도시는 높은 지역성장 수준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도시면적비율이 높다는 것은 많은 도시기능이 밀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청이나 도청이 입지한 곳은 해당 광역권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입지는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총 4개의 프로구단(두산베어스(프로야구), LG트윈스(프로야구), 삼성전버스(프로농구), SK나이즈(프로농구))이 존재한다.

막대한 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지나치게 큰 도시면적은 공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지역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 내 유·무형 자원이 인구·산업·재정측면의 도시 성장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준로그모형을 바탕으로 사용한 인구모형, 산업모형, 재정모형은 적합도 측면에서 모두 높은 R²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가 도시성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분석모형에서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파악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자원변수는 5보다 작은 VIF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⁷.

실증분석 결과 사회자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비율(APT)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수(UNIV)는 인구, 산업, 재정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동시에 정(+)⁸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도시성장에 있어서 사회자원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교통자원의 경우에는 인구와 산업모형에 있어서는 정(+)⁹의 영향을 주지만 초기 건설비와 계속 발생하는 운영적자로 인해 운영비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이 커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음(-)¹⁰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자원은 4가지 요인이 모두 정(+)¹¹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지역 비율은 인구·산업·재정측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문화체육자원 중 지역축제와 프로스포츠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인구·산업·재정측면의 도시 성장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표 4. 도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자원 분석결과

특성	변수	인구모형	산업모형	재정모형	VIF
	상수	10.104*	8.578*	2.290*	-
사회 자원	APT	.380*	.305*	.477*	1.931
	UNIV	.186*	.130*	.076***	1.328
교통 자원	SUB	.054	.090***	-.115***	3.238
	TRAIN	.026	.028	-.024	1.358
	KTX	.046	.063***	.031	1.260
문화 체육 자원	FEST	.074**	.089**	.032	1.180
	CUL	-.017	.157*	.143*	1.224
	SPO	.151*	.131*	-.010	1.362
	PRO	.118**	.102**	.068***	1.170
공간 자원	AREA	.094	.115**	.119**	2.564
	URBAN	.307*	.363*	.297*	4.259
	OFFI	.051	.102**	.046	1.120
	METRO	.176*	.146*	.358*	1.690
Adj-R ²		.780	.809	.714	-
F		62.815*	75.055*	44.652*	-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는데 기여를 하고, 외부 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축제성 이벤트를 통해 특히 산업과 재정측면에서의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문화시설의 경우 인구 성장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시설이 지역 간 인구이동을 도모할 만큼 특색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음을 추정케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외 지역축제와 공공체육시설 역시 도시재정과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력은 없었으나 각각 지역축제를 통한 세수증대로 인한 정(+)¹²의 효과와 시설설치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한 음(-)¹³의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내 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인구 및 산업성장은 7-9%정도, 지방재정은 3%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스포츠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스포츠시설이 해당 지역 내 위치해 있을 경우 인구, 산업, 지방재정은 대략 7%에서 12%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삶의 질을 중시여기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화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 내 해당 자원에 대한 소비지출이

7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보다 작을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35].

늘어 산업 및 지방재정의 성장이 도모되며, 이와 더불어 인구유입도 발생하는 선순환적인 도시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도시 건설 등 적극적인 문화마케팅 전략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문화체육관련 동호회 활동의 확산, 노령인구의 증가, 주 5일 근무제도 도입 등의 변화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고자 문화체육행사 및 시설 건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36].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원 중 특히 지역 내 문화체육과 관련된 자원이 도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문화체육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지역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은 여가 및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중심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30][37][38]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성장정책을 수립할 때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대안으로써 생활스포츠의 확산, 프로스포츠시설의 입지, 지역문화요소의 강조 등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 관련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

시에 잡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 지역의 인적자원까지 포함하는 보다 미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회귀 분석 이외의 시계열 분석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해 변수의 종단적 선행행 관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역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전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13.
- [2] 김종호, 황관, “중국의 인구정책 혁신,”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3호, pp.169-189, 2014.
- [3] M. Rao, “An Imagined Reality; Malthusianism, Neo-Malthusianism and Population Myth,” Economic and Policy Weekly, Vol.29, No.5, pp.40-52, 1994.
- [4] 이희연, *인구학*, 법문사, 2003.
- [5] 조혜중, *새인구론*, 푸른길, 2006.
- [6] 한주성, *인구지리학*, 한울아카데미, 2009.
- [7] R. B. Tabbarah and B. Riad, “Population Education as a Component of Development Policy,”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7, No.7, pp.197-201, 1976.
- [8] 이명재, 남상호, *현대경제변동론*, 박영사, 2003.
- [9] P. A. Romer,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4, No.5, pp.1002-1037, 1986.
- [10] R. M. Slow, *Neoclassical Growth Theory*, New York: Elsevier, 1999.
- [11] 박영호,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 관하여,” 동향과 전망, 제44권, 제3호, pp.200-211, 2000.
- [12] 김진영, “국제자료를 통해 본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pp.103-127, 2003.
- [13] 심재희, “신고전학과 성장이론의 비판적 검토,”

-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5호, pp.1887-1904, 2005.
- [14] J. Jacob,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1969.
- [15] M. E. Conroy, *The Challenge of Economic Development*, Lanham: Lexington Books, 1975.
- [16] R. M. Northam, *Urban Geography*,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79.
- [17] 정원식, “지방자치시대의 도시 간 지역격차의 실태와 영향요인 비교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 pp.141-160, 2001.
- [18] J. Heilbrun, *Urban Economics and Public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 [19] 정환용, “서비스산업과 도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1호, pp.19-37, 1997.
- [20] S. Illeris, *The Service Economy: A Geographical Approach*,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96.
- [21] 임창호, 김정섭, “산업집적의 외부효과가 도시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38권, 제3호, pp.187-201, 2003.
- [22] 강수연, 이희정,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5호, pp.81-92, 2011.
- [23]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 [24] 김성현,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pp.221-246, 2005.
- [25] 박희서,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강진청자문화제 방문객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1호, pp.77-94, 2008.
- [26] 성도경, 이지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영향 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pp.135-156, 2013.
- [27] 최인식, 도시마케팅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8] 조한범, 윤준호, 김미향, “프로농구 관중 특성에 따른 경기장 이벤트 유형별 선호도와 만족도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55-165, 2006.
- [29] 주수현, 유영명, “롯데 자이언츠 팀의 승률과 관중 관계 및 지역과급효과 분석,” 지역사회연구, 제18권, 제4호, pp.73-89, 2010.
- [30] 서원석, 광정현, “대규모 프로스포츠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특성요인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712-721, 2016.
- [31] 김상호, 유의동, “한국프로축구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1권, 제1호, pp.237-250, 2006.
- [32] S. J. Jackson, “Toward an Investment Theory of Sport Spectatorship,” *Play and Culture*, Vol.1, No.4, pp.314-321, 1988.
- [33] 이훈영, *통계학*, 청람, 2010.
- [34] 이해용, 이필용, *이야기로 배우는 통계학*, 자유아카데미, 2003.
- [35] R. O'Brien, “A Caution Regarding Rules of Thumb for Variance Inflation Factors,” *Quality and Quantity*, Vol.41, No.5, pp.673-60, 2007.
- [36] 오동훈, 이재순, 정만모,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9권, 제2호, pp.75-96, 2006.
- [37] 김혜천, “실천성의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과제,” 도시행정학보, 제16권, 제3호, pp.129-143, 2003.
- [38] 김태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토정책 Brief, Vol.58, pp.1-4, 2004.

저 자 소 개

곽 정 현(JungHyun Kwak)

준회원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수원시정연구원 과제연구원

<관심분야> : 도시계획, 부동산

서 원 석(Wonseok Seo)

정회원



- 2008년 12월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부동산경제, 주택, 도시환경 및 계획